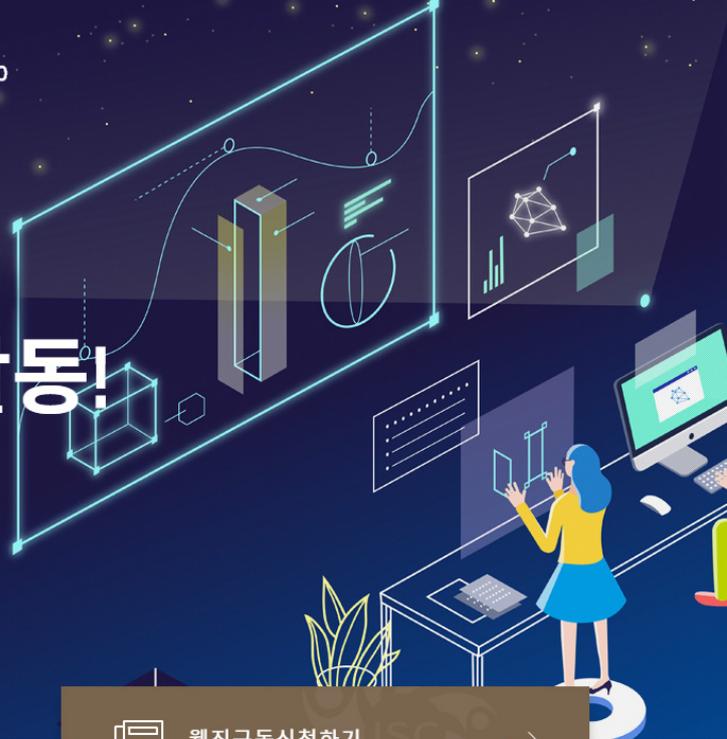


'홈코노미' 집에서 펼쳐는 경제활동! 소비의 만능 키

ISC 월간 웹진 '일과 사람' 20호에서는
'홈코노미'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해 드립니다.



웹진구독신청하기

트렌드+

트렌드+ 파크스 (株)



여가부터 소비까지, 집에서
펼치는 경제활동 '홈코노미'

파크스 파크스 + 니켈트



홈코노미 시대 속 산업
흐름 전망

원격으로 '홈코노미'를
지원하는 기업,
알서포트



트렌드+ 이필의 기업

이필의 기업 + 니켈트



'집에서 뭐하니?' 홈족이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

심표+



업(業)로드

'차'에 '집'을 담다, 여행 대세는 차박!

자세히보기



ISC 법인, 승기로운 직장생활

재택근무, 스마트하게 할 수 있을까?
효율성을 높이는 5가지 팁!

자세히보기



집에서 즐기자!
홈족 맞춤형 유튜브 채널 추천

혹시 이미 구독중?
홈터
홈카페
홈북
홈베이킹

자세히보기



영화로운 ISC

자금자족 '홈족'이 돋보이는 <리틀 포레스트>

자세히보기

ISC+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사람투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힘이 되는 자격증

360만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처리기사'

독자참여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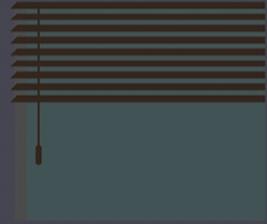
독자와 함께 만드는 ISC웹진

ISC 웹진 리뷰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하기



포커스업(業)



여가부터 소비까지, 집에서 펼치는 경제활동 '홈코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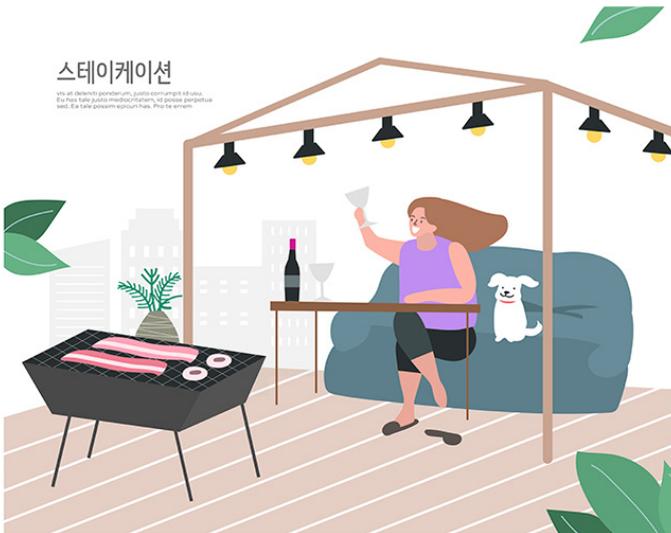


홈코노미는 홈(home)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주로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홈족(home族)에 의해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요즘의 '집'은 단순히 휴식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으며, 의식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소비 활동을 펼치는 공간이 되었다.

집, 그 이상의 의미

스테이케이션

stay + vacation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



홈족이 증가하며 집 안 여가족(외출보다 집 안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 홈스케이프(home+escape; 각박한 현실에서 탈출해 안식처인 집에 머무르는 것) 등의 집과 관련된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에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집 관련 키워드 언급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홈트레이닝'은 2017년 대비 2018년에 무려 213%가 늘었다. 이어서 홈강스(160%), 홈카페(53%), 홈요가(43%), 홈극(19%), 홈술 홈바(13%), 홈베이킹(12%), 홈스쿨(7%) 순으로 언급량이 증가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집 안에 머물며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홈족이 집 안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캡슐커피 머신, 핸드드립 도구 등을 구매해 홈카페를 즐기거나, 빔프로젝터를 사 소파나 침대에서 영화를 즐기기도 한다. 집 안에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오늘날의 집은 집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홈퍼니싱 성장 + 홈족의 비서 'AI 스피커'

'집콕'하는 홈족이 늘어나고, 코로나19의 장기화까지 더해져 주거공간은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이처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집을 안락하게 꾸미려는 사람도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홈퍼니싱(home+furnishing; 가구, 조명 등 집안을 꾸밀 수 있는 제품) 관련 매출액 증가를 근거로 들 수 있다.

홈퍼니싱 관련 소매 판매액은 올해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했으며, 온라인 가구 거래액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2.7% 증가했다. 집을 주거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데다가, 집을 꾸미고자 하는 욕구가 인테리어 및 가구 지출로 이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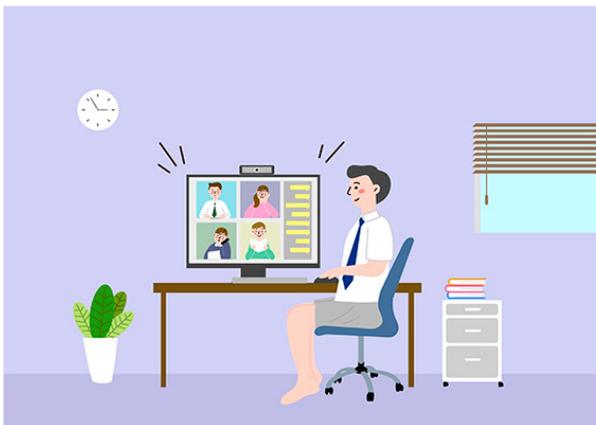
이에 사람들은 집의 한 공간을 홈시네마, 홈짐, 홈카페 등으로 만들거나 휴양지, 스위트룸 등의 콘셉트로 방을 꾸미기도 한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증가하자 홈오피스를 만들기 위해 공간을 구분하는 '존(zone)' 인테리어 제품 판매도 늘었다.

이렇게 꾸민 집은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 인스타그램 등에 소개한다. 자신의 공간 구성구석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며,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사람들과 제품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한다. 집의 달라진 의미가 달라진 시대를 가져온 것이다.

가전 업계는 홈코노미의 코크핏(cockpit)을 갖기 위해 너도나도 스마트 기기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AI 스피커다. AI 스피커는 TV를 켜주고 꺼주는 것은 물론, 실시간 날씨 정보 제공과 주문 및 배달까지 척척 한다. 또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해 말 한마디로 에어컨, 세탁기, 로봇청소기까지 제어할 수 있으니 '홈족의 비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T 기가 지니, 구글 네스트 허브,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미니 허사 등 다양한 AI 스피커가 출시되고 있는 요즘, 홈코노미의 성장과 함께 집 안의 비서인 AI 스피커 판매율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Gartner, Inc.)에 따르면 AI 스피커는 2016년 7억 2,000만 달러 규모에서 2021년 35억 2,000만 달러 규모로 5배 성장할 전망이다.



케렌시아에 학교와 회사를 더하다



예로부터 집은 오로지 휴식을 즐기는 케렌시아(querencia;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였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홈족이 증가하고, 집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홈코노미 현상이 대두되며 집은 집+학교, 집+회사와 같은 복합적인 공간이 되었다.

학교와 회사에 가지 않으며 집에서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관련 업계가 성장하고 있다. 바로 웹·화상 플랫폼이다. 현재 Zoom, 구글 행아웃, 아마존 차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네이버 에드워드 등의 다양한 온라인 수업·화상 회의 플랫폼이 있다.

OWL Labs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웹·화상 플랫폼을 통한 회의는 실제 미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었지만, 이젠 하나의 협업 도구로 일상생활 속에서 거부감 없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근무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니, 웹·화상 플랫폼은 홈코노미 시대를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홈코노미시대 속 산업 흐름 전망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 바로 홈코노미 시대다. 홈코노미 현상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더욱 두드러지는데, 정보기술 ISC 리포트 리뷰를 통해 산업의 흐름과 전망을 살펴보자.

정보기술 ISC

온라인 동영상,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강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 시장의 성장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 및 광고 분야도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홈코노미 시대 속 홈족의 증가로 영화관보다는 홈시네마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2020년 1월 첫째 주 넷플릭스의 평균 사용자는 약 80만 명이었지만, 3월 첫째 주엔 97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3월 14일엔 일평균 126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및 웹툰 시장의 성장

외출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사람이 증가하자, 게임과 웹툰에 소비하는 시간도 함께 증가했다. 시장조사 업체 엠에니에 따르면 2020년 2월 넷째 주 국내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는 1,510만 건으로, 이는 지난해 주간 평균 1,090만 건 대비 약 35%가 증가한 수치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 게임 등으로 콘텐츠를 확장하고 있으며, 홈코노미 시대 속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영상회의 솔루션 & 협업 도구

홈코노미 현상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더욱 발전되고 있는데, 특히 재택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3.0%씩 성장하는 추세이며, 특히 재택근무를 통한 영상회의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외로 기업에 따라 재택근무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구글, 줌(ZOOM) 등이 내놓은 재택근무 솔루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한국 에듀테크 시장 전망



글로벌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장 규모



자료: TechNavio Global Telemonitoring System Marke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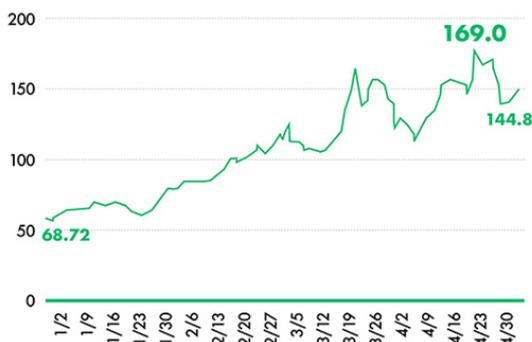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상회의 솔루션 '팀즈'는 지난 3월 20일 기준 하루 사용자가 4,400만 명으로 일주일새 사용자가 1,000만 명 이상 늘었다. 구글 지스위트의 영상회의 서비스 '구글 미트'도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 3월 사용자는 지난 1월보다 20배 이상 증가했다. '줌' 역시 지난 3월 한 달간의 일일 트래픽이 전월보다 53%나 증가했으며, 미국 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알서포트는 클라우드 영상회의 '리모트미팅'을, 토스랩의 '잔디'는 팀별 영상통화 및 화면 공유가 가능한 업무용 메신저를 제공했다.

협업 도구는 다자간 협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공유저장소, 일정관리, 문서작성 등의 자료 공유 및 업무 관리 솔루션이다. 사무실이 아닌 각자의 집에서 근무할 때 쉽고 빠르게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선 이러한 협업 도구는 필수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은 PC 시장의 주요 OS용 오피스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협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기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들(Drive, Calendar, Docs, Sheets, Slides 등)을 연계한 기업용 솔루션 'G-Suite'를 제공하며 강자로 부상했으며, 이 외에도 '리브레오피스', NHN의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더존비즈온의 '위하고' 등의 협업 도구가 등장했다.

에듀테크 시장 성장 및 전망

줌(ZOOM)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추가 추이



자료: 나스닥

홈코노미 시대 속 온라인 교육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2018년 1,530억 달러에서 2025년 3,42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와 이에 친숙한 Z세대의 증가로 에듀테크 확산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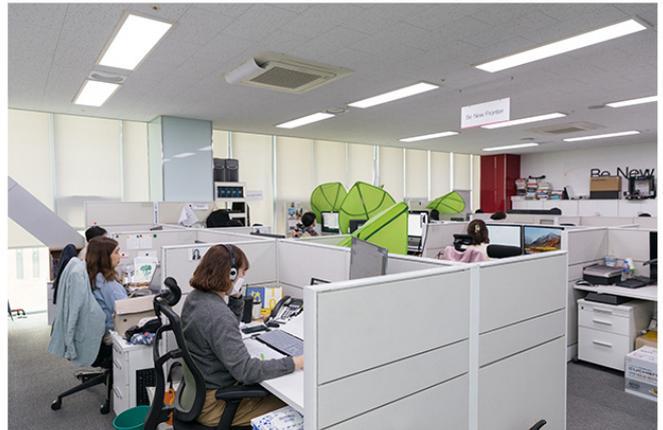
미국, 중국, 영국 등 에듀테크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에듀테크 투자액은 2019년 16.6억 달러를 기록해 5년 만에 최고액을 달성했다.

또한, Z세대의 증가는 에듀테크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일컬어질 만큼 인터넷, 모바일 등의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온라인 강의와 재택근무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Pearson社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책보다 유튜브 등의 영상매체, 교육용 앱 등을 활용한 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에듀테크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리모트미팅(Remote Meeting)'은 웹 기반의 화상회의 솔루션이다.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직관적인 UX(사용자 경험)를 제공해 특별한 교육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컴퓨터를 조작하기 힘든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대면 회의를 하는 것처럼 판서하거나 포인터로 특정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화상회의에서 자주 발생하는 발언 중첩을 줄이기 위해 '사회자 모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으며, AI 기술을 적용한 'AI 기록 기능'은 AI가 발표자를 탐지해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한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리모트뷰(Remote View)'다. 이는 원격접속 제어 솔루션으로, 사무실 내부에 있는 PC와 사무실 외부의 PC를 원격으로 연결해 어디서든 사무실 환경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 '웹 뷰어'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한 PC와 다른 PC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회사 PC에만 설치된 프로그램이나 그룹웨어가 필요할 때, 급히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때에도 외부에서 회사 PC의 전원을 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재택근무 시 예로 든다면, 회사에서 작업하던 문서를 USB에 담아 오거나 내 메일로 전송해두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업무를 이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알서포트의 다음 프로그램은 '리모트콜(Remote Call)'로, 재택근무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격지원 솔루션이다. 집에서 일하던 중 PC에 이상이 생겼을 때 리모트콜을 사용하면 현장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역시 '리모트미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으며, 윈도우, 맥OS,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운영체제와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3가지 제품과 덧붙여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리모트세미나(Remote Seminar)'다. '웨비나(Webinar; web+seminar)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정식 출시를 앞두고 현재 베타 버전을 지원하고 있다. 웹 브라우저에서 세미나 내용을 입력하고 자료를 첨부하면 바로 웨비나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다양한 레이아웃과 템플릿을 제공해 풍성한 발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또 발표 자료와 화면을 공유할 수 있으며, 채팅을 이용한 실시간 질의응답과 설문 조사도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였을 때, 화상회의 솔루션 '리모트미팅'은 올해 1월 초보다 서버를 약 40배 증설했다. 같은 시기 원격접속·제어 솔루션 '리모트뷰'는 그 서비스 이용 건수가 무려 44배 증가했다.

특히 국내에선 리모트미팅에 관한 수요가 늘었는데, 무상 제공 기간엔 평소보다 50배가량 높은 사용량을 기록했다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된 8월 또다시 사용량이 매우 증가했는데, 1월 대비 636.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글로벌 시장 중에선 일본 시장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리모트뷰에 관한 수요가 급증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엔 전월 대비 5.3% 증가, 3월엔 81.7% 증가를 기록했으며, 4월에는 764.8%로 대폭 상승했다. 1월 대비 8월 사용량은 1367.4%로, 여전히 증가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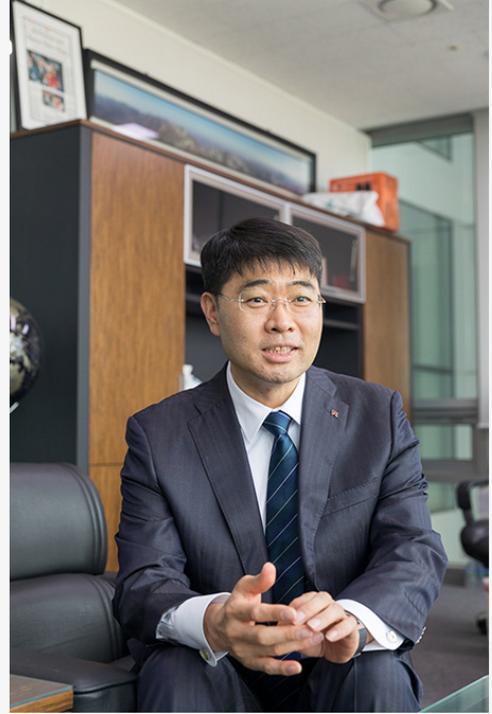


이처럼 알서포트는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여 사업을 넓히고 있다. 특히 특허 전략을 세워 일본, 중국, 미국 등에 100여 건의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다.

고객이 신뢰하는 고품질 원격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핵심 기술 R&D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앞선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성화된 '홈노미 시대'에서 더욱 주목 받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고 커나갈 알서포트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알서포트 대표 서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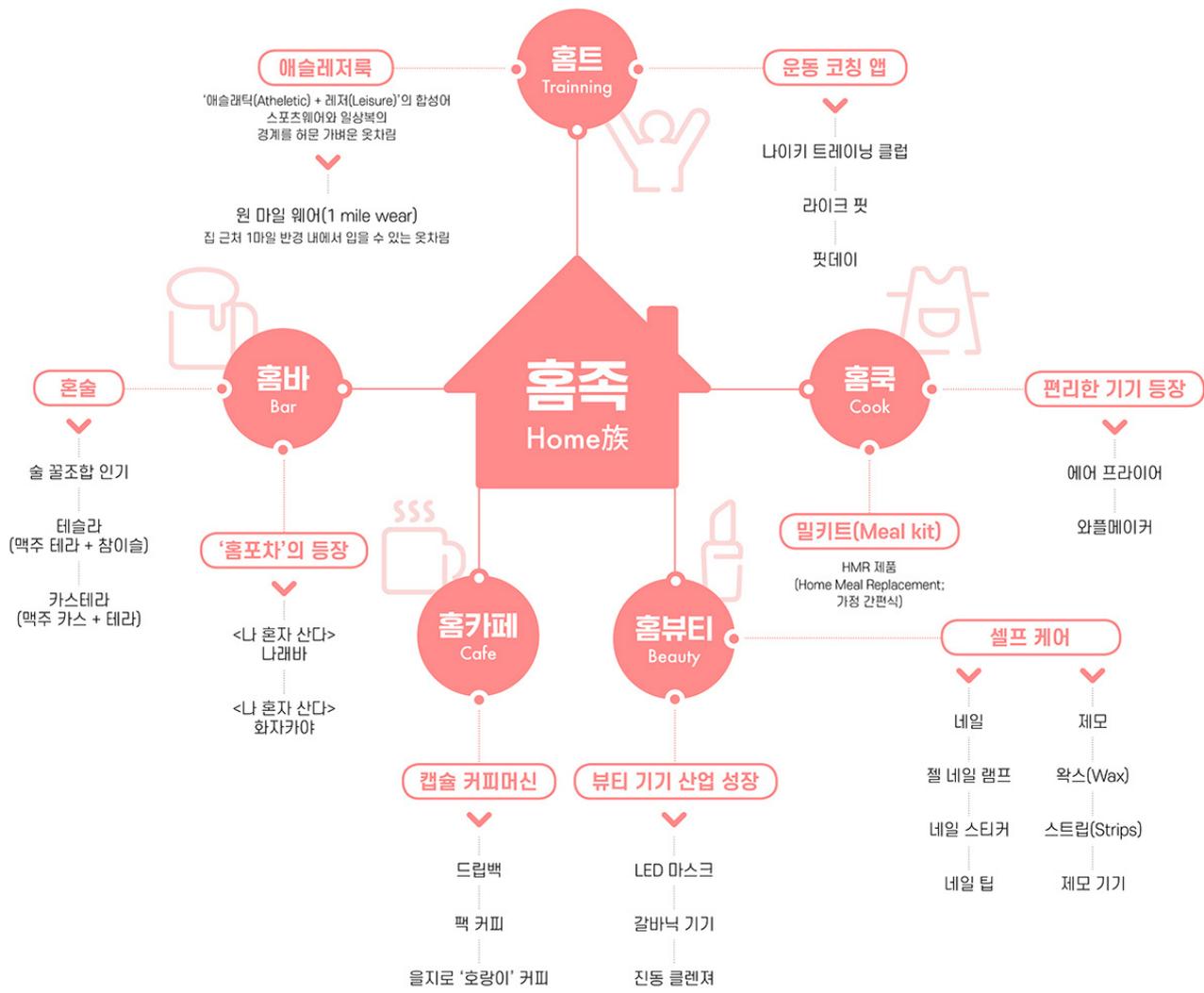
- Q 10월호 웹진의 테마는 '홈코노미'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요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A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재택근무'는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해 원격회의 솔루션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에 알서포트는 원격 기반의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AI 기술을 함께하여 지속해서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Q 재택근무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셨다고요.
- A 지난 1분기, 예산이나 인프라인가 부족해 재택근무를 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무상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긴급상황 대처를 도운 것인데요, 무상 서비스를 종료한 후에도 많은 이용자가 유료 전환을 해주셨습니다. 4,500여 기업 가운데 1,000여 기업이 현재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Q 알서포트에서 진행했던 일학습병행제, 어땠나요?
- A 회사 내부의 선임들이 교육의 주최자가 되어 자기의 기술을 후임에게 알려줍니다.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자신의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할 계기가 되기도 했죠. 후임들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일하며 배울 기회를 얻은 것이기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의식의 흐름

'집에서 뭐하니?' 홈족이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

하루 중일 집에만 있는 누군가를 보며 '쓸쓸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트렌드에 뒤쳐진 사람이다.
 요즘엔 자발적으로 집에 머물며 다양한 것을 즐기는 '홈족(Home族)'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생산성 없이 시간만 보내는 카우치 포테이토(couch potato;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감자칩을 먹는 사람), 히키코모리와는 다르다.
 집을 주거공간으로 한정 짓지 않으며 요리,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홈족이 집에서 어떤 콘텐츠를 즐기는지, 또 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과 제품 등을 살펴보자.





업(業)로드

‘차’에 ‘집’을 담다, 여행 대세는 차박!

리드: 집에서 여가를 즐기는 홈족(Home族)이 많아진 요즘, 홈시네마, 홈카페, 홈바 등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 웬만한 걸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요즘이지만, 딱 한 가지 무조건 집 밖을 나서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여행’이다. 여행은 삶에 활력을 주고, 팍팍한 일상 속 추억을 만들어준다. 안락한 집을 떠나긴 싫지만, 여행은 가고 싶다면 ‘차’에 ‘집’을 담은 ‘차박’은 어떨까? 운전대만 잡으면 전국 어디든 우리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박만의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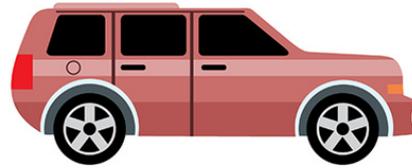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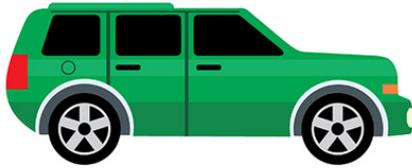


차에 집을 담았다는 점도 좋지만, 차박이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자연과 가까이 여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손에 닿을 듯 산과 바다가 보이는데다가, 선루프가 있는 차라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은하수를 만날 수도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캠핑의 로망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인스타그램 속 #차박 #차박캠핑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많은 하늘과 아기자기한 캠핑용품,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사진을 본 적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떠나는 여행이지만 꽤 운치 있다.

차박의 세 번째 매력, 바로 캠린이(캠핑+어린이; 캠핑 초보자)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카라반이 무엇인지, 사이트가 무엇인지 알 필요 없다. 숙소를 예약할 필요도 없다. 꼭 필요한 것만 간단히 챙겨 트렁크에 싣고 떠나면 된다. 운전하다 멈춰서면 그곳이 바로 나의 집!

차박, 어떤 차가 좋을까?



먼저 차량 트렁크의 크기를 따져보는 게 좋다. 크기에 따라 어떤 짐을 챙길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당일치기인지 1박 2일인지 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 '셀토스'는 498ℓ,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460ℓ, 쌍용 '티볼리'는 427ℓ 정도이다.

기아 '레이'는 경차이지만, 차박 하기 좋은 차로 주목받고 있다. 트렁크를 열고 2열 좌석을 접으면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쉐보레 '올란도'도 차박에 최적화되어 있다. 차박의 필수인 '평탄화'를 하기 좋으며 호텔.모텔이 부럽지 않다고 하여 '올란탈'이라는 별명까지 있다. 쉐보레의 또 다른 차 '이쿼닉스'는 원터치로 좌석을 접을 수 있다. 2열까지 접으면 180cm, 1,800ℓ의 공간이 생겨 성인 남자도 편히 누울 수 있다.

차박 시 챙겨야 할 것들



특별한 준비 없이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것이 차박의 장점인 만큼, 짐은 최소화해 간단하게 싸는 것이 좋다. 차에서 잠을 자야 하니 필수인 것은 차박 전용 매트. 에어매트는 바람을 빼 부피를 줄일 수 있어 편하고, 야외에서 자는 건 생각보다 추우니 담요도 꼭 필요하다.

캠핑의 하이라이트는 맛있는 저녁 식사다. 하지만 간편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차박 시엔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을 챙기는 것이 좋다.

팁 그리고 주의사항



숙소를 이용하지 않으니 근처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공중화장실' 또는 '화장실'을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주차할 땐 수평을 맞춰야 한다. 차가 삐딱하게 서 있으면 안정적이지 않고, 테이블이나 컵을 놓을 때, 잠을 잘 때도 거슬린다.

또 미연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범람 우려가 있는 강가, 만수 선보다 아래인 곳엔 차를 대지 말자. 캠핑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도 있고, 차박이 가능해도 취사 행위는 불가능한 곳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차박인 만큼 쓰레기를 되가져 오자. 아름다운 자연 속 차박 캠핑을 오래 즐기고 싶다면 말이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재택근무, 스마트하게 할 수 없을까? 효율성을 높이는 5가지 팁!

ISC 웹진_슬기로운 직장생활

재택근무, 스마트하게 할 수 없을까?

효율성을 높이는 5가지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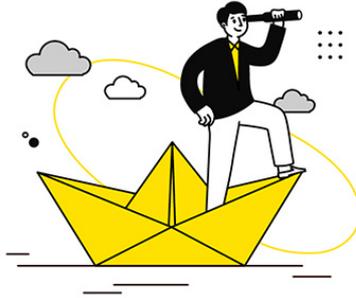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ISC 웹진_슬기로운 직장생활 ·

회사에서의 일과 그대로,

규칙적인 일정 관리



아침 10시 기상. 오후 2시 점심 식사? No~
회사에서와 동일한 리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재택근무의 시작!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ISC 웹진_슬기로운 직장생활 ·

잠옷은 벗자구~

외출복 입고 일하기



**뽕송뽕송~ 매끈한 잠옷을 하루 종일 입고 있으면
맑은 정신에도 잠이 쏟아진다.**
'근무 중'이라는 걸 내 몸이 알 수 있도록 옷을 갈아 입어보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ISC 웹진_슬기로운 직장생활 ·

쉬는 공간과 분리해

나만의 업무 공간 만들기



**식탁 오른쪽 의자, 왼쪽 구석 바닥처럼
구체적인 나만의 업무 공간을 만들어볼까?**
나를 생활공간과 분리도 되어, 쉴 때도 폭~ 쉴 수 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ISC 웹진_슬기로운 직장생활 ·

휴식을 휴식답게~

명상, 스트레칭으로 멘탈 다스리기



**사무실에선
5분의 휴식 시간을 갖는 것조차 눈치 보일 때가 있다.**
집에서만큼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보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ISC 웹진_슬기로운 직장생활 ·

열심히 일한 당신,

직장인 모드 로그아웃



퇴근 시간이 지나면 쿨~하게 컴퓨터 전원을 끄자.

**김대리, 박부장의 삶에서 로그아웃해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YouTube



생활의 발견

집에서 즐기자! 홈족 맞춤형 유튜브 채널 추천

홈트, 홈극, 홈뷰티... 집에서 다양한 것을 즐기는 홈족의 시대다. 하지만 집에서 홀로 운동하고 요리하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를 해결해줄 홈족 맞춤형 유튜버를 소개한다. 이들은 궁금했던 것을 콕 찝어 알려주는데다가,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와 시각적 요소를 더해 보는 재미까지 준다.

[화면 캡처: 각 유튜브 채널]

홈트 Thankyou BUBU(땅끄부부)

2020년 확진자 주목! 집에서 확 찐 살을 감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홈트 코치, 바로 땅끄부부다. 땅끄와 오드리 부부는 시종일관 모든 영상에서 활짝 웃으며 운동법을 알려준다. 이들이 웃고 있다고 웬지 운동 강도가 약할 거라 생각이 든다면 큰일이다. 영상 두세 개만 따라 하다 보면 땀이 줄줄 흐르기 때문이다. 가장 유명한 영상은 뱃살 빠지는 운동, 집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 허벅지 안쪽 살 빼는 운동 등이다. 또 허벅지, 뱃살, 팔뚝 살·상체 등 부위별 운동법을 재생목록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해보자.

<https://www.youtube.com/c/thankyoububu>

홈트 강하나스트레칭

강하나스트레칭
구독자 47.4만명

홈 동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채널 정보

업로드한 동영상 모두 재생

2008하체 스트레칭	승모근 스트레칭	니킥 300개	팔뚝살 짹! 빼기
#레전드하체 #부종제거 #하체타겟	#생굴미인 #승모근보톡스 #어깨운동 #뱃속비근	복부와 허벅지를 슬림하게	#무조건빼기 #뱃속운동 #심지민운동만점
2008편집본 Hana Kang Lower Body Stretching 201... 조회수 465만회 · 2년 전	한 번만에 바로 효과보는!! 몽친 승모근 없애는 스트레칭 -... 조회수 166만회 · 2년 전	니킥300개 (복부와 허벅지를 슬림하게) - 강하나 스트레칭... 조회수 136만회 · 10개월 전	팔뚝살빼기(TRICEPS) - 강하나 스트레칭(2018) 조회수 124만회 · 1년 전

홈트계의 바이블이자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다. 사실 강 하나는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 강도 높은 하체 스트레칭 영상으로 유명했는데, 약 10년 만에 유튜브로 돌아와 깨끗한 화질의 홈트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유롭게 카운트하는데, 이 영상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온몸이 쪽쪽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 가장 유명한 영상은 2008년 버전 하체 스트레칭 편집본이다.

<https://www.youtube.com/c/강하나>

홈쿡 Mrs macarons마카롱여사

Mrs macarons마카롱여사
구독자 24만명

구독중

홈 동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채널 정보

업로드한 동영상 모두 재생

바쁜 아침 간편식으로 빵식입니다.	김밥 마는거 한번 보실래요?	집김밥 만들기	실패없는 잡채만들기
조회수 261만회 · 2개월 전	조회수 89만회 · 4개월 전	조회수 83만회 · 1년 전	조회수 82만회 · 7개월 전

마카롱여사는 정성이 가득 담긴 홈쿡을 선보인다. 집김밥, 홈메이드 육포 등의 다양한 메뉴가 골고루 인기 만점이며, 무쇠팬, 채칼, 냄비, 계량스푼 등 그가 사용하는 조리도구까지 맘카페에서 화제가 된다. 영상은 스톱모션(stop motion) 기법을 사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다. 아기자기한 분위기에 ASMR 빵치는 소리로 힐링은 덤이다! 제일 인기 있는 영상은 아침 간편식, 김밥 마는 모습, 잡채 만들기 등이다.

<https://c11.kr/ibrb>

홈룩 SOF(소프)

잘 만들고 잘 먹는 유튜버 소프. 그는 홈룩에 먹방까지 선보인다. 신제품, 화제의 제품을 리뷰하기도 하는데, 그 제품을 이용해서 또 먹방을 펼친다. 주제별 재생목록을 만들어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소용 스텝 요리, 업소용 생연어 요리, 업소용 라면수프 등의 업소용 제품 재생목록이 인기다. '1인 창작자-중소기업' 연계로 자신의 이름을 건 버터 장조림을 출시한 바 있다.

<https://www.youtube.com/c/SOF724>

홈뷰티 UNA 유나

요즘엔 피부관리샵에 가지 않고 홈뷰티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에 유튜버 유나는 모공, 블랙헤드, 좁쌀 여드름, 팔자주름 홈케어 등 피부에 관한 다양한 고민과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 이너 뷰티, 스킨케어, 제품 리뷰 등의 재생목록이 있으며, 커진 모공 줄이는 법을 선보이는 영상이 가장 인기 많다.

<https://www.youtube.com/c/BeautyCloudChannel>

홈뷰티 RISABAE(이사배)

이사배는 연예인 메이크업팁과 특수분장팀 출신 뷰티 유튜버다. 연예인 본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커버 메이크업을 통해 유명해졌다. 이 외에도 '깡으로 버터라' 시리즈로 큰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데, 외국어 쓰지 않고 화장하기, 단점 부각 메이크업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다. 여자라면 누구나 화장하며 뷰티 유튜버를 따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집콕하며 재미난 영상을 따라 즐겨보면 어떨까.

<https://www.youtube.com/c/RISABAE>

홈카페 y. na__ homecafe

마시기 아까울 만큼 예쁜 음료를 만든다. 음료의 색감이 예뻐서 힐링 듯 영상을 보게 되는데, 눈 깜짝할 새 시간이 순삭되어 있을 정도다. 홈카페 유튜버 y.na는 제조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영상을 보며 바로 따라 해보기도 좋다. 알록달록하고 다양한 모양의 얼음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며, 홈카페 영상을 모은 4개의 영상이 채널 내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https://c11.kr/ibri>

홈베이킹 한세HANSE



홈카페 스토어



한세HANSE
구독자 255만명

구독

홈 동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채널 정보

업로드한 동영상 모두 재생 정렬 기준



마스카포네 티라미수 만들기 (+레이디핑거) | 한세
조회수 1455만회 · 1년 전



리얼 딸기 우유 만들기 Fresh Strawberry Milk | 한세
조회수 1099만회 · 2년 전



초콜릿 자르는 소리 ASMR | 한세 (-_-)zzz
조회수 954만회 · 3년 전



홈카페 영상 모음 10탄! | 한세 Home Cafe Compilation Vol...
조회수 839만회 · 1년 전

홈베이킹의 진수를 보여주는 홈카페 유튜브 한세. 이는 다양한 디저트와 ASMR이 함께하는 채널이다. 마카롱, 머랭쿠키 등의 종류별 재생목록과 누텔라, 녹차 등의 재료별 재생목록을 꾸려두었다. 또 베이킹 초보자를 위한 노 오븐 베이킹 레시피, 종이컵 계량 레시피, 1분 요리 등과 같은 간편한 영상도 소개하고 있어 부담 없이 시청하기 좋다. 홈베이킹에 도전할 예정이라면 그의 채널을 참고해보자.

<https://www.youtube.com/c/hanse1101>

영화로운 ISC

자급자족 '홈쿡'이 돋보이는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는 자급자족 홈쿡(home cook)이 돋보이는 영화다. 맛있는 음식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어져 화면 속으로 손을 뻗고 싶은데다가, 지글지글 요리하는 소리는 ASMR을 방불케 한다.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을 사계절로 보여주어 영상미까지 보장, 잔잔한 음악으로 힐링은 덤이다.

[사진 - 네이버 영화]



주인공 혜원(김태리)은 도시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임용고시 공부를 병행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임용 시험에도 떨어졌고, 도시에서 채울 수 없는 허기를 느껴 고향 집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영화는 직접 키운 작물로 제철 음식을 만들어 먹는 혜원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혜원의 친구 재하(류준열)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던 중 '이렇게 사는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곧장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과수원을 운영한다. 또 다른 친구 은숙(진기주)은 고향 농협에 취업한 토박이로, 늘 도시살이를 꿈꾸고 있지만, 쉬이 떠나지 못한다.

다시 주인공의 이야기로 돌아와, 혜원에겐 함께 임용 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남자친구만 시험에 합격하고, 혜원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 도망치듯 고향 집으로 온 혜원은 남자친구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헤어지자며 이별을 고한 것도 아니다. 그저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 뿐이다. 혜원은 겨울에 이곳으로 내려온 뒤, 여름이 되어야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다. '시험에 합격한 것 다행이지만 정말 축하해'라고. 고향에서 생활하며 여유가 생긴 것이다.



혜원은 직접 농사지은 작물로 사계절 동안 음식을 해 먹으며 주변의 인물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해왔다. 친구 은숙과 화해하기 위해서 '크림 브릴레'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는 어릴 적 엄마가 자신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줬던 메뉴다. 단순히 요리하는 과정을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처럼 음식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활용한 점을 발견하면 영화의 재미는 배가 된다.

추운 겨울날 고향에 도착해 처음으로 만들어 먹은 '배춧국'은 도시에서 생활하며 얼어있던 혜원의 몸과 마음을 녹였다. 이 외에도 시루떡, 막걸리, 떡볶이, 파스타 등 다양한 음식이 등장하는데, 영화를 보며 '왜 하필 이 음식을 만들었을까?' 하며 궁금증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감상 방법이다.



어떤 이는 <리를 포레스트>를 보며 농촌의 힘든 점들을 무시하고, 로망만 가득 담은 영화라고 한다. 또 상사의 말에 바로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사람, 맘에 들지 않던 상사를 폭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냐며 말이다. 하지만 영화라는 것이 본래 실제 삶과는 다른 것. <리를 포레스트>는 지친 이에게 힐링을 주는 영화임은 확실하다.



힘이 되는 자격증

360만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처리기사'

360만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는 인기 국가기술자격증을 알아보는 시간.
10월에는 정보처리기사에 관해 알아봅니다.

“
정보처리기사는
정보시스템 등의 개발 요구사항을 이해하여
각 업무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관한 설계, 구현 및 테스트를 수행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

자격 내용과 취득 방법

필기시험

- 소프트웨어설계
- 소프트웨어개발
- 데이터베이스구축
- 프로그래밍언어활용
- 정보시스템구축관리

객관식 60문제(4지택일) ▶ 60점 이상 합격



실기시험

- 정보처리실무

작업형 과제 ▶ 60점 이상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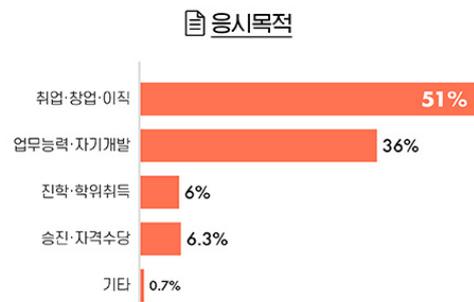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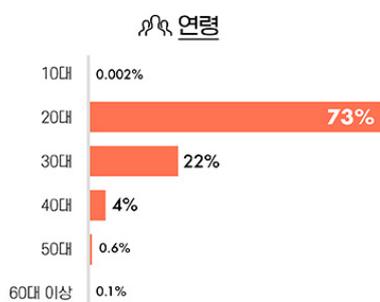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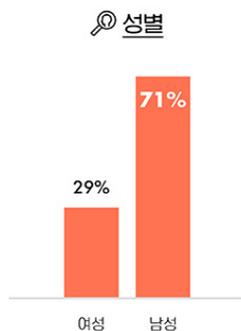


자격 취득 현황

✓ 취득자 수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7,452명	16,727명	22,495명

✓ 응시자 동향(2018년 기준)



자격취득자 워크넷 구인현황 www.work.go.kr, 2018년

✓ 구인건수



✓ 채용 제안금액



우대 사항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리원의 자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자격 취득 및 경력에 따라 초급~고급 감리원 인정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자격취득자에 대해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인정
- **공무원 임용 가점 (공무원 임용 시험령)**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인정

관련 직업 전망 www.work.go.kr 한국직업전망

-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과 함께 IT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향후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사업체 수 2012년 3,761개소 → 2017년 4,885개소로 꾸준히 증가 추세
- 국내 시스템 SW시장 전망 2016년 약 3조 8,500억원 → 2020년 약 5조원으로 30.1% 증가 예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의 모든 것(큐넷) www.Q-net.or.kr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www.ncs.go.kr | 직업·일자리 정보(워크넷) www.work.go.kr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람투자 당신의 꿈에
투자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무엇인가요?

인력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입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주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 재직근로자와 채용예정자를
주요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표성 및 전문성이 있는 **산업·업종별 협·단체**와
산업형 공동훈련센터가 1개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구성 및 역할

산업별 협·단체

- 산업계 주도 훈련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
- ISC-RSC, 공동훈련센터, 기업과 협의하여 훈련 프로그램 개발
- 기업 협약 훈련·채용 지원



+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 산업계 주도 훈련의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약 체결
- 공동훈련센터 훈련 계획 수립
- 훈련 과정 개설 및 운영
- 채용 예정자 훈련 수료생의 채용 지원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현황

연번	산업분야	산업별 협·단체명	산업형 공동훈련센터명
1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	금형, 금속가공, 표면처리, 용접(뿌리산업)	한국금형공업 협동조합(뿌리SC)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협회
3	정보기술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훈련원
4	관광/레저	한국MICE협회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5	스마트공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SC)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술교육원
6	스마트제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전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아주대학교
7	디자인·문화콘텐츠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SC)	홍익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8	정보통신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9	정보기술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한국IT교육재단

(2020. 10. 12. 기준)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어떤 훈련과정이 있나요?

4차 산업분야, 신산업·신기술·고속련 분야 등
산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정보기술, 스마트공장, 관광·레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등
16개 분야 78개의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하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운영절차가 궁금하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조

주요사업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문의 지역산업별지원국 산업지원부 (052-714-8752, 8793)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람투자 당신의 꿈에
투자합니다